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19	김재섭의원 등 11인	2024. 10. 25.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2205681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 11. 1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2208913	조승래의원 등 12인	2025. 3. 1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7. 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2209210	강준현의원 등 15인	2025. 3. 21.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7. 18.)	
				소위 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11. 2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는 위 4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 제5장, 제3편 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 제5장, 제3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제4조(증권) ① ----- ----- ----- ----- ----- ----- ----- ----- ----- ----- ----- ----- ----- <u><단서></u> <u>삭제></u>
1. 투자계약증권	<u><삭 제></u>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u><삭 제></u>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
용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 ⑩ (생략)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

----- . -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로 정한다.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u>④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